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최근에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지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여러분이 보았던 지도처럼 우리가 평소 접하는 일반적인 지도는 사실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옛 지도 중에는 정확한 사실 정보보다 제작자의 주관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나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천하도’가 그런 지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천하도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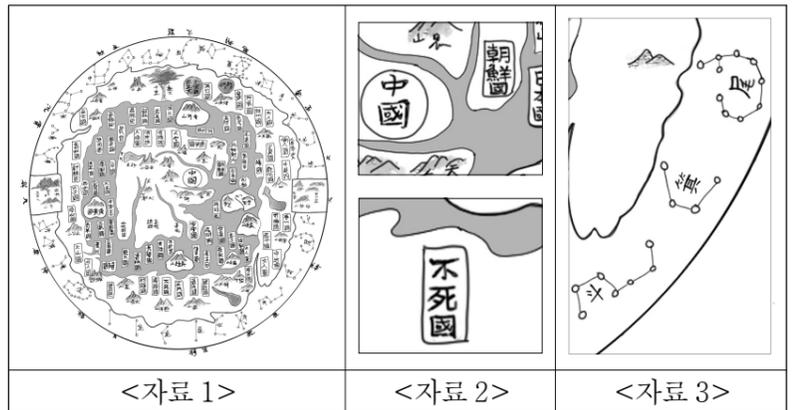
천하도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널리 유행한 조선 시대의 세계 지도입니다. (㉠ 자료 제시) 천하도의 다양한 판본 중 하나인 이 지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전체 형태를 보시면 세계를 원 형태로 나타내고 중앙의 안쪽 대륙, 이 대륙을 둘러싼 바다, 바다 밖의 대륙으로 구성된 점이 천하도의 전형적인 양식에 해당합니다. (㉡ 자료 제시) 위의 그림은 지도의 중앙 부분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나라를 가리키며) 안쪽 대륙에는 실제 나라인 중국, 조선국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대륙 일부분을 확대한 아래 그림을 볼까요? 여기 ‘불사국’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라는 뜻으로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바다와 바깥 대륙에는 대인국, 머리가 세 개인 사람들이 사는 삼수국 등 상상의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 자료 제시) 또 가장자리 일부를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선으로 연결된 동그라미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28수의 별자리를 그린 것으로 천문학에 대한 제작자의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천하도는 판본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로 안쪽 대륙에 실제 나라, 바다와 바깥 대륙에 상상의 나라를 원형의 세계로 그린 점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의 세계 지도는 조선에만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하도가 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서양 세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접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에 두고 그 바깥에 실제 서양 세계 대신 가상의 나라를 그림으로써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천하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천하도 외에도 흥미로운 옛 지도들이 많습니다. 옛 지도에 담긴 과거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청중에게 발표의 중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천하도’의 전체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천하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에 <자료 2>를 활용하여 실제 나라와 상상의 나라를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에 <자료 2>를 활용하여 지도 제작자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에 <자료 3>을 활용하여 천문학에 대한 제작자의 관심이 지도에 반영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지도는 사실적 정보만을 담아 제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작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지도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어.

학생 2: 옛 지도는 대동여지도밖에 몰랐는데, 당대 사람들의 상상력이 담긴 세계 지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어 유익했어. 발표자가 알려준 누리집에 방문해서 다른 지도들도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3: 오늘 발표에서 천하도가 판본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판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발표 중 다루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38~42] (가)는 토론 전 찬성 측 학생이 작성한 입론서 초고이고, (나)는 이를 읽은 찬성 측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별로 상속권에 대해 서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고인과의 추억을 잃게 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논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은 크게 인터넷 계정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 자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정의 경우 계약상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도 실체는 없지만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가 부여된 저작물이라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계정을 계약상의 지위가 아닌, 특정 개인에만 온전히 속한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속 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또 고인이 남긴 데이터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생 1: 작성해 준 초고는 잘 봤어.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미리 의논했던 대로 논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니 우리 입장이 잘 드러난 것 같아. 그래도 토론에 참여하려면 입론서를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그래. 함께 작성한 토론 개요서를 참고해서 쓰긴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줘.

학생 3: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거지?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낱선 용어들의 개념은 모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하지만 토론자들이 이미 용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서 조사한 용어를 모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A]

학생 1: 그렇긴 해도 배경지식이 없는 청중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조사한 용어를 빠짐없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학생 2: 그래. 그럼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 개념도 같이 설명할게.

학생 3: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의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구나.

학생 2: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 대신에

[A]

학생 1: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에 근거로 추가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건 어떨까?

학생 2: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제도나 해외 기업의 사례는 조금 더 꼼꼼히 조사한 후 반론 단계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B]

학생 3: 좋긴 한데, 지난번에 함께 조사해서 알고 있듯이 해외 기업들의 경우 디지털 유산 정책이 다양해서 반대 측에서도 해외 기업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

학생 1: 우리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만 반론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 3: 그래. 그리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기업의 정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정책보다 상속인에게 더 이익이 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입론서에 데이터 중 저작물에 대해서만 상속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학생 3: 데이터 중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래. 그렇게 수정해 볼게. 그리고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 반대 측 근거로 조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추가했는데 오히려 상대측의 근거로 활용되는 건 아닐까?

학생 3: 난 오히려 현재 상속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돼서 더 좋은 것 같아. 대신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상되는 반론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좋아.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토론의 쟁점인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인가?’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데, 삭제하여 논의 내용을 초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해 볼게.

38.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정의한 후 상속인의 자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② 디지털 유산을 기록 매체에 따라 분류한 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밝힌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④ 디지털 유산을 상속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한 후 상속 과정을 절차에 따라 안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⑤ 디지털 유산의 유형에 따라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비교한 후 두 제도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39.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토론 개요서**이다. (나)의 대화를 참고했을 때, ㉠~㉢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논제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	
용어의 개념	○ 디지털 유산 :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상에 남긴 데이터 형태의 모든 정보 ○ 포괄적 권리의무 : 특정 개인에 온전히 속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	
논제의 배경	○ ○ ○ 기업 : 계정 정보 제공하지 않음. 공개된 데이터의 백업 제공. ○ △ △ 기업 : 계정 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음.	
입장	찬성	반대
주장	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이다.	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유 및 근거	㉡ : ○ 독일의 경우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함. :	㉢ : ○ 특정 주체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포괄적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실체가 없는 데이터는 상속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

- ① ㉠ : 사전에 의논한 대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였다.
- ② ㉡ : 토론자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특정 용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 ③ ㉢ :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약관이 인터넷 서비스 기업별로 다르다는 점만 언급하였다.
- ④ ㉡ : 반론 단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생략하였다.
- ⑤ ㉢ :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대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였다.

40.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학생 2'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을 절충한 뒤 절충한 의견이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에게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와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학생 2'는 다른 학생의 제안을 들은 후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41. ㉠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어.
- ② 디지털 유산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언급하여 디지털 유산이 지닌 가치를 강조했어.
- ③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여 디지털 유산 상속의 어려움을 구체화했어.
- ④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이유를 언급하여 제도가 지닌 한계를 구체화했어.
- ⑤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실적 피해를 언급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냈어.

42.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수정 내용
1문단	○ '포괄적 권리의무'의 개념을 설명한다. ①
2문단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를 추가한다. ② ○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저작물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③
3문단	○ 토론 쟁점과 관련 없는,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④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⑤

[43~45] 다음은 환경 동아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폐어구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

I. 조사 동기 및 목적
우리 동아리는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 실천'을 취지로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폐어구로 인해 죽어 간다는 뉴스를 접한 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폐어구 문제의 현황과 폐어구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폐어구 문제의 현황과 폐어구의 증가 원인
'폐어구'란 더 이상 못 쓰게 되어 바다에 버려진 그물이나 통발, 밧줄 등의 어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양 쓰레기 발생량 중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전체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해양 생물이 폐어구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3,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폐어구로 인한 해양 선박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폐어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해양에 폐어구를 버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구에 소유 정보를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페어구의 경우, 대부분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것도 페어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페어구 문제의 해결 방안

먼저 어구실명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페어구를 불법으로 버리는 소유주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어구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어구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페어구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페어구 문제가 남의 일이라는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로 여길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A] 이처럼 페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낚시 및 해양 레저활동 시 사용한 낚시 도구와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한다.

43. 학생이 보고서의 초고를 쓰기 위해 세운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대상의 개념을 설명해야겠어.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겠어.
- ③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조사의 동기가 되었음을 언급해야겠어.
- ④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 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인식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겠어.

44. 다음은 [A]를 쓴 후 학생이 선생님께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하여 해결 방안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이처럼 페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멸종 위기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페어구 문제의 원인은 삭제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가
- ② 페어구 문제의 원인은 삭제하고, 페어구 문제의 조사 동기와 동아리의 취지를 반영
- ③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가
- ④ 시민들의 개인적 실천 방안은 삭제하고, 페어구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추가
- ⑤ 시민들의 개인적 실천 방안은 삭제하고, 페어구 문제의 조사 동기와 동아리의 취지를 반영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통계 자료

(㉠-1) 해양 쓰레기 비율

(㉠-2) 페어구로 인한 해양 선박 사고

㉡. 신문 기사 자료

최근 멕시코 해안에서 바다거북 300마리가 페어구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처럼 페어구에 해양 생물이 걸려 죽거나 다치는 현상을 ‘유령 어업’이라고 한다. ○○ 자료에 따르면 수거된 페어구 중 소유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페어구가 85%로 나타났다. 이에 어구에 전자 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페어구 투기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전문가 인터뷰 자료

“페어구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해 보니 플라스틱이 8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성을 막기 위해 A국은 어구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페어구의 분실 및 투기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① ㉠-1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 중 페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II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 ② ㉠-2를 활용하여, 페어구로 인한 해양 선박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II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③ ㉡을 활용하여, 페어구로 인해 해양 생물들이 죽어 간다는 I의 내용의 사례로 제시한다.
- ④ ㉠-1과 ㉢을 활용하여, 페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II의 내용에 해양 쓰레기 중 페어구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추가한다.
- ⑤ ㉡과 ㉢을 활용하여, 어구실명제의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III의 내용에 어구실명제가 페어구 수거율을 높여 과태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